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87호 【루게 제24600호】 주제 103 (2014)년 7월 6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송도원국제소년단  
야영소를 현지지도하시  
였다.

한광상 동지, 마원춘  
동지, 김여정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를 야영소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야영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관리  
운영정형을 료해하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먼저  
아이물놀이장에 새로  
설치한 급강하물미끄럼  
대를 돌아보시였다.

지난 6월초 인민군대에서 제작  
한 급강하물미끄럼대를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해수욕을  
할 때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6월  
말까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에 먼저 설치해주자고 말씀하시  
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승고한 의도를 심장깊이 새긴 군인



체육도 할수 있게 못배  
도 마련해주자고 말씀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건설하고있는 야영소  
의 전용역인 송도원  
역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야영생들을  
위한 직통열차를 마  
련하고 운행준비까지  
다해놓았는데 역사를  
야영생들의 편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개성이 살아나게 잘  
꾸려야 한다고 지시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에서 품을 넣어 꾸려  
준 송도원국제소년단  
야영소의 관리를 잘하

원수님께서서는 먼저 아이물놀이장  
건설자들은 짧은 기간에 급강하물미  
끄럼대설치를 끝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급강하물  
미끄럼대를 볼수록 잘 만들었다고,  
아이들이 좋아할것이라고,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것이여서 더욱 마  
음에 든다고, <대동강>상표를 적  
붙이니 얼마나 좋은가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급강하  
물미끄럼대설치를 손색없이 잘했  
다고 하시면서 다음기 야영부러

아이들이 마음껏 리용하게 하라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건설  
한 조약대와 수조를 보여주시고 시  
공을 잘했다고 평가하시면서 야외  
물놀이장에 항상 맑은 물이 넘쳐날  
수 있게 물려과를 잘하라고 이르지  
였다.

새로 꾸린 거울집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야영소에  
아이들의 놀이터가 나날이 늘어  
나고있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야영소에  
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칠새없  
이 울려 퍼지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  
하시면서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  
는 우리 인민에게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준다고 말씀하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수족관을  
돌아보시면서 상어를 비롯한 희귀한  
물고기들의 종수와 마리수가 늘어났  
다고 기뻐하시였으며 해수욕장을  
돌아보시면서는 야영생들이 해양

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관리운영에  
서 나서는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날 야  
영소의 일군들, 교직원, 종업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전체  
일군들과 교직원,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승고한 미래사랑, 후대  
사랑을 꽃피워나가는 길에서 자신들  
이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  
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혁명 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 보도망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해군 지휘성원들의 수능능력향상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판정훈련에 앞서 조선인민군 해군 지휘성원들의 수능능력향상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판정훈련에 앞서 조선인민군 해군 지휘성원들의 수능능력향상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유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해군 지휘관들이 수능의 능수가 되어야 해병들을 이끌고 망망대해에서도 해상작전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수능능력향상훈련을 시작할때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판정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해병들이 수능능력향상훈련을 제도와, 생활화하는것을 비롯하여 해군부대의 싸움준비완성과 전투력강화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투시절의 제일선에 서야 할 지휘관들이 사상정신상태가 아무리 좋고 군사기술적자질이 높다고 해도 육체적능력이 떨어지지 못하면 지휘관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지휘관들이 든든히 준비되어야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호를 부르며 언제나 군인들의 앞장에서 훈련을 강도높이 진행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해병들은 높은 수능능력을 소

유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해군 지휘관들이 수능의 능수가 되어야 해병들을 이끌고 망망대해에서도 해상작전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수능능력향상훈련을 시작할때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판정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해병들이 수능능력향상훈련을 제도와, 생활화하는것을 비롯하여 해군부대의 싸움준비완성과 전투력강화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투시절의 제일선에 서야 할 지휘관들이 사상정신상태가 아무리 좋고 군사기술적자질이 높다고 해도 육체적능력이 떨어지지 못하면 지휘관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지휘관들이 든든히 준비되어야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호를 부르며 언제나 군인들의 앞장에서 훈련을 강도높이 진행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해병들은 높은 수능능력을 소

유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해군 지휘관들이 수능의 능수가 되어야 해병들을 이끌고 망망대해에서도 해상작전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수능능력향상훈련을 시작할때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판정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해병들이 수능능력향상훈련을 제도와, 생활화하는것을 비롯하여 해군부대의 싸움준비완성과 전투력강화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투시절의 제일선에 서야 할 지휘관들이 사상정신상태가 아무리 좋고 군사기술적자질이 높다고 해도 육체적능력이 떨어지지 못하면 지휘관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지휘관들이 든든히 준비되어야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호를 부르며 언제나 군인들의 앞장에서 훈련을 강도높이 진행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해병들은 높은 수능능력을 소

##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각 하께

존경하는 김정은각하 저희들은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탁월한 사상리론과 정력적인 혁명명도, 고매한 덕망과 인품으로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위인으로 만민의 다함없는 추모를 받고계시는 김일성주석을 회고하는 국제인터넷포럼을 진행하였으며 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 하였습니다. 또한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쳐서 미국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고 조선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끝없이 빛내여주시였으며 세계의 정의와 평화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김정일각하의 위대한 업적에 대하여 격조높이 토로하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두리에 굳게 묻혀 강성국가 건설하고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였 습니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숭고한 위업은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드림없이 이어지고있으며 그분들의 넋이여 아름다운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는 조선의 현실은 우리에게 신심

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습니다. 각하께서 계시어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과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곧바로 전진할것이며 전인류가 자주화된 새 세기에 살게 될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할것입니다. 저희들은 각하께서 내놓으시는 모든 로선들과 정책들을 전적으로 지지할것이며 각하의 현명한 명도를 받는 조선인민의 편에 언제나 서있을것입니다. 각하께서 앞으로도 진보적인류의 앞길을 밝히는 위창한 등대로 저희들을 언제나 곧바로 이끌어주시기를 념원합니다.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과 세계자주화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강성조선의 무궁번영할 패일을 위하여 각하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김일성주석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진행된 국제 인터넷포럼에 참가한 자제들 2014년 6월 28일 자카르타

## 선군혁명의 길에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

조선혁명군 결성 기념일을 맞으며

우리 수령님의 나이는 10대이시었다. 일찌기 총대가 없는 민족의 수난이 어떤것인가를 뼈저리게 새기신 우리 수령님이시였기에 그 나이에 벌써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시어 백두산혁명투쟁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시셨다. 1930년대 초 조성된 정세는 폭력적성격을 띠고 급격히 고조된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 발전시킬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역사적인 카를로에서 강도 일제와 전면적인 무력항전을 벌릴때 대한 항일무장투쟁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무장투쟁로선을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기본로선으로, 조선혁명가들앞에 나

서는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당시 무장투쟁로선은 보통 담략과 배짱을 가지고서는 내놓을수 없는 로선이었다. 사실 그때 세 세대 혁명가들에게는 무장투쟁을 벌리는데 필요한 자식이 별로 없었으며 그렇다고 본보기로 삼을만한 군사교범이나 경험이 있는것도 아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결성식에서 있었다면 독립군과 화성의속출신의 여러 동지들과 몇자루의 권총이 있었을지였다. 오직 조선혁명가들자체의 힘으로, 자기의 혁명적무장으로 강도 일제를 쳐물리치고 조국을 해방하여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확고한 신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가치가 빛나는 항일무장투쟁의 정당한 로선을 판철하기 위하여 그 첫 사업으로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시였다. 역사적인 카를로에서 있었던 때로

부러 불과 며칠 사이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첫 무장조직에 받아들인 청년들을 선발하는 사업과 함께 무기를 마련하는 일을 동시에 밀고나가도록 하시어 조선혁명군결성을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시였다. 주체 19(1930)년 7월 6일 고구수의 삼랑학교 운동장에서 조선혁명군결성식이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결성식에서 《조선혁명군의 사명과 기본임무에 대하여》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연설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군은 자기의 적극적인 정치군사활동으로 무장투쟁의 핵심적공간을 육성하며 무장투쟁에 필요한 무기를 마련하고 군사적경험을 축적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굳게 결속하여 조직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바로 여기에 조선혁명군의 사명과 기본임무가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총대중시사상을 빛내게 하신 하시였기에 우리 인민은 자기의 구태의연한 혁명군대에 의거하여 역사의 온갖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헤치고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있었다. 한평생 군사와 정치, 총대와 혁명을 하나로 결합시키시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로 이끄신 불세출의 평창 김일성대원수님의 거대한 공적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혁명의 총대를 앞세우고 세기와 세대를 이어 언제나 백전백승만을 펼쳐온 선군혁명투쟁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오늘 또 한번의 백두의 적무장투쟁을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될수 있었다. 주체 21(1932)년 4월 25일 마침내 선군혁명투쟁의 갈피에 빛나는 자욱을 아로새기며 우리의 혁명적무장투쟁을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될수 있었다. 주체 21(1932)년 4월 25일 마침내 선군혁명투쟁의 갈피에 빛나는 자욱을 아로새기며 우리의 혁명적무장투쟁을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될수 있었다. 주체 21(1932)년 4월 25일 마침내 선군혁명투쟁의 갈피에 빛나는 자욱을 아로새기며 우리의 혁명적무장투쟁을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될수 있었다.

2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명도밑에 눈부신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였다. 결과 우리 혁명의 행정에서는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군사적준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신속있게 전개되게 되였으며 세대의 상비적혁명투쟁을 건설할수 있는 든든한 기초가 마련되게 되었다. 주체 21(1932)년 4월 25일 마침내 선군혁명투쟁의 갈피에 빛나는 자욱을 아로새기며 우리의 혁명적무장투쟁을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될수 있었다. 주체 21(1932)년 4월 25일 마침내 선군혁명투쟁의 갈피에 빛나는 자욱을 아로새기며 우리의 혁명적무장투쟁을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될수 있었다. 주체 21(1932)년 4월 25일 마침내 선군혁명투쟁의 갈피에 빛나는 자욱을 아로새기며 우리의 혁명적무장투쟁을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될수 있었다.

이 일대 사변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새로운 무장투쟁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전환점으로 되였다. 조선혁명군은 결성된 후 불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거룩한 한생이 어려웠던 혁명의 총대를 어깨에 틀어잡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펼쳐가시는 선군혁명투쟁을 높이 받들어 이 땅위에 통일되고 통성변영하는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본사기자 림 정 호

# 당조직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자

## 옳은 방법론으로 열어세끼 진격로 대중령도의 송고한 귀감을 교과서로 삼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대영으로 영현히 높이 받들어 모시고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업무를 빛나게 계승완성 하라!》

최근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반년은 실험 결과야 한다던 소성로 1호제 련대보수공사를 단 25일만에 끝내고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었다. 이와 함께 설비들의 환원복구 및 현대화를 진행해 추진하여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깨끗한 작업환경 조건을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여기에는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간 책임있는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의 참신한 당사업기공이 높여졌다. 그러던 이곳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이 대중을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시한 점은 무엇이였는가.

먼저 지핀 벚길 대표적실례에 예영화를 통한 실험도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한두번 실험이나 하고 호소나 하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한번의 정치사업을 해도 일군들의 심장을 팡팡 울리게 하려는 당위원회일군들의 깊은 사색이 비껴있었다. 실제로는 영화의 주인공의 높은 정신세계에 자신들을 비추어보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였다. 당위원회에서는 당, 행정일군들로 지휘관계를 편성하고 수십차례의 현장형의, 특화전집을 통한 해설사업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그들을 분발시키

려하였다. 그 소행들은 집단의 정신력을 발동하는 불길로 타올라 모두들 감동시킴으로써 종업원들을 유유자재수집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이렇듯 당위원회에서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대중에게서 찾고 그에 의거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에서 다음으로 중시한것은 군중의 힘을 믿고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한것이다. 설비들의 환원복구를 진행하는데서 제일 걸린것은 각종 규격의 철관이었다. 수많은 자재와 철관이 요구되는것으로 하여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조련타발을 하는 경향도 있었다. 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능숙한 군중공작 방법으로 그들의 창의창발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였다. 김철성동무가 3개의 발보를 안고갔을 때였다. 물론 소용되는 수많은 부속품들에 비해볼 때 그리 큰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의 그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였다. 당위원회에서는 그의 소행을 현장속보판과 방송선전지에 의한 선전, 혁신사추하모임 등을 통하여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자재상사 파장이었던 리승철 동무의 이해가 불치의 병으로 순직한 남편을 대신하여 현대

화공사에 새달라고 많은 량의 지원물자를 보내온것을 비롯하여 종업원들속에서 긍정적인 소행들이 발휘될 때마다 빠짐없이 찾아내어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가 다음으로 중시한것은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이다. 후방사업이자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 당의 의도를 깊이 새기고 당위원회에서는 후방사업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종업원들의 투쟁을 적극 추동하였다. 한마디로 후방사업으로 강력한 《지원포사격》을 한셈이다. 당위원회 비서 허철 호동무가 현장을 나갔을 때였다. 설비파장 정영준동무를 만나 이야기 나누던 일군은 그의 동복에 눈길을 뚫어주었다. 작업복이 적지 않게 닳았었다.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경험은 옳은 방법론을 찾아 활용하는것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의 진격로 열어세끼가 위한 중요한 담보라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강서구역 청산리당위원회 일군들 강서구역 청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령도의 뚜렷한 자취가 아로새겨진 력사의 고장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 49(1960)년 2월 청산리와 당시의 강서군당위원회 사업을 지도하시는 과정에 우리 당의 혁명적중공로선을 구현하고있는 대중지도사상이며 지도방법인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며 《전당일군중속에 들어가자!》는 당의 구호를 계속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리당위원회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대중령도의 송고한 귀감을 교과서로 삼고 일하면서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키고 있다. 올해 1월 논두둑짓는 련결농기계를 만들 때였다. 설비가 부족하여 일부 사람들은 자체의 기술력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하고있었다. 하지만 리당위원회일군들은 배심이 든

의하면 농장에는 땅속 10~15cm깊이에 굳은 층이 형성된 면적이 있었다. 그것때문에 벼뿌리가 깊이 뻗지 못하고 생육에 지장을 받아 정량당 알곡수확고를 더 높이지 못하고있었다. 리당위원회일군들은 기계화작업인 기술자들에게 들어가는 문제를 풀기 위한 방도를 찾아나갔다. 지난해 7월 기계화작업반 한성진동무가 깊은 층을 뒤집어 이를 하는 련결농기계를 만들것을 자진해서였다. 리당위원회는 강력한 기술력량을 무어주는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소재가 미처 따라서서 못하여 앵을 먹고있을 때에는 일군들이 직접 강선을 비롯한 여러곳을 다니며 구해왔고 이곳에 있는 공장에 달려가 압연도 해왔다. 한 기술자가 가정문제로 고심하고있을 때에는 그것을 풀어주기 위한 사업에 전심을 바쳐나갔다. 당조직의 교묘한 손길을 뜨겁게 느낀 그 기술자는 기능공들과 힘을 합쳐 석달이 라는 짧은 기간에 깊은층뒤집기기를 하는 련결농기계를 5대나 만들어냈다. 그리하여 논벼의 생산조건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정량당 알곡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본사기자 손영희

일군들의 심장에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우선 일군들을 발동하는것을 중요한 과제로 틀어쥐었다. 사실 기업소자체의 힘으로 소성로 1호제련대보수와 설비들의 환원복구 및 현대화를 진행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처음 일부 일군들은 여기에 신심있게 뛰어들지 못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일군들의 기관차적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당위원회 책임일군은 일군들의 심장에 먼저 불을 지피기 위한 사업을 포일있게 진행하였다.

조급당위원회에서 원산시곡산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방도를 조급 일군들을 발동시키는 데서 찾았고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해나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색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부분품들을 꾸겨 하고 완성되는 차례로 평가해 벌별 때였다. 정성숙, 리영 옥동무를 비롯한 작업반장들은 분발하였다. 종업원들을 발동하여 성형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성해냈다. 파자작업반들을 일선시키기 위한 전투를 벌일 때였다. 일부 조급일군들이 높은 천정의 층마다 어쩔수 없다고, 공사만은 그만두고 할 때 조급당에서는 공장안팎을 다 알뜰하게 꾸미며 대하여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안을 내놓았다. 천정에 실리는 힘을 력학적으로 계산한 그의 착상은 사람들의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조급일군들은 다시한번 분발하였다. 단위의 종업원들을 발동하여 단 한주일동안에 600여m에 달하는 천정의 층마다 공사를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과정에 조급 일군들은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대중발동의 모토도 찾아내게 되었다. 하나같이 열이 백, 천의 심장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대중을 발동하여 공장면모를 일신시켜 이룩 조급당일군들의 사업에 의해 어버이수령님의 송고한 념원을 활짝 꽃피우고있다. 본사기자 전경서

강력한 《지원포사격》으로 련합기업소당위원회가 다음으로 중시한것은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이다. 후방사업이자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 당의 의도를 깊이 새기고 당위원회에서는 후방사업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종업원들의 투쟁을 적극 추동하였다. 한마디로 후방사업으로 강력한 《지원포사격》을 한셈이다. 당위원회 비서 허철 호동무가 현장을 나갔을 때였다. 설비파장 정영준동무를 만나 이야기 나누던 일군은 그의 동복에 눈길을 뚫어주었다. 작업복이 적지 않게 닳았었다.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경험은 옳은 방법론을 찾아 활용하는것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의 진격로 열어세끼가 위한 중요한 담보라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을 철저히 관철...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며 《전당일군중속에 들어가자!》는 당의 구호를 계속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리당위원회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대중령도의 송고한 귀감을 교과서로 삼고 일하면서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키고 있다. 올해 1월 논두둑짓는 련결농기계를 만들 때였다. 설비가 부족하여 일부 사람들은 자체의 기술력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하고있었다. 하지만 리당위원회일군들은 배심이 든

의하면 농장에는 땅속 10~15cm깊이에 굳은 층이 형성된 면적이 있었다. 그것때문에 벼뿌리가 깊이 뻗지 못하고 생육에 지장을 받아 정량당 알곡수확고를 더 높이지 못하고있었다. 리당위원회일군들은 기계화작업인 기술자들에게 들어가는 문제를 풀기 위한 방도를 찾아나갔다. 지난해 7월 기계화작업반 한성진동무가 깊은 층을 뒤집어 이를 하는 련결농기계를 5대나 만들어냈다. 그리하여 논벼의 생산조건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정량당 알곡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본사기자 손영희

사투리는 그리움으로 불리는 7월을 철도부문의 당조직들은 어떻게 맞이했는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철도동맹계의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분출시켜 대고조를 적극 추동하는것으로 맞이했다. 김중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기관차조립직장 조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기공은 그것을 말해주는 한 실례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후 어려운 시기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수호하는 구조를 웨치며 위대한 천리마시대를 열어나가도록 힘써야 한다.》

원산시곡산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방도를 조급 일군들을 발동시키는 데서 찾았고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해나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색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조급당위원회에서 원산시곡산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방도를 조급 일군들을 발동시키는 데서 찾았고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해나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색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부분품들을 꾸겨 하고 완성되는 차례로 평가해 벌별 때였다. 정성숙, 리영 옥동무를 비롯한 작업반장들은 분발하였다. 종업원들을 발동하여 성형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성해냈다. 파자작업반들을 일선시키기 위한 전투를 벌일 때였다. 일부 조급일군들이 높은 천정의 층마다 어쩔수 없다고, 공사만은 그만두고 할 때 조급당에서는 공장안팎을 다 알뜰하게 꾸미며 대하여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안을 내놓았다. 천정에 실리는 힘을 력학적으로 계산한 그의 착상은 사람들의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조급일군들은 다시한번 분발하였다. 단위의 종업원들을 발동하여 단 한주일동안에 600여m에 달하는 천정의 층마다 공사를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과정에 조급 일군들은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대중발동의 모토도 찾아내게 되었다. 하나같이 열이 백, 천의 심장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대중을 발동하여 공장면모를 일신시켜 이룩 조급당일군들의 사업에 의해 어버이수령님의 송고한 념원을 활짝 꽃피우고있다. 본사기자 전경서

강력한 《지원포사격》으로 련합기업소당위원회가 다음으로 중시한것은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이다. 후방사업이자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 당의 의도를 깊이 새기고 당위원회에서는 후방사업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종업원들의 투쟁을 적극 추동하였다. 한마디로 후방사업으로 강력한 《지원포사격》을 한셈이다. 당위원회 비서 허철 호동무가 현장을 나갔을 때였다. 설비파장 정영준동무를 만나 이야기 나누던 일군은 그의 동복에 눈길을 뚫어주었다. 작업복이 적지 않게 닳았었다.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경험은 옳은 방법론을 찾아 활용하는것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의 진격로 열어세끼가 위한 중요한 담보라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을 철저히 관철...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며 《전당일군중속에 들어가자!》는 당의 구호를 계속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리당위원회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대중령도의 송고한 귀감을 교과서로 삼고 일하면서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키고 있다. 올해 1월 논두둑짓는 련결농기계를 만들 때였다. 설비가 부족하여 일부 사람들은 자체의 기술력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하고있었다. 하지만 리당위원회일군들은 배심이 든

의하면 농장에는 땅속 10~15cm깊이에 굳은 층이 형성된 면적이 있었다. 그것때문에 벼뿌리가 깊이 뻗지 못하고 생육에 지장을 받아 정량당 알곡수확고를 더 높이지 못하고있었다. 리당위원회일군들은 기계화작업인 기술자들에게 들어가는 문제를 풀기 위한 방도를 찾아나갔다. 지난해 7월 기계화작업반 한성진동무가 깊은 층을 뒤집어 이를 하는 련결농기계를 5대나 만들어냈다. 그리하여 논벼의 생산조건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정량당 알곡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본사기자 손영희

사투리는 그리움으로 불리는 7월을 철도부문의 당조직들은 어떻게 맞이했는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철도동맹계의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분출시켜 대고조를 적극 추동하는것으로 맞이했다. 김중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기관차조립직장 조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기공은 그것을 말해주는 한 실례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후 어려운 시기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수호하는 구조를 웨치며 위대한 천리마시대를 열어나가도록 힘써야 한다.》

원산시곡산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방도를 조급 일군들을 발동시키는 데서 찾았고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해나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색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조급당위원회에서 원산시곡산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방도를 조급 일군들을 발동시키는 데서 찾았고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해나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색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부분품들을 꾸겨 하고 완성되는 차례로 평가해 벌별 때였다. 정성숙, 리영 옥동무를 비롯한 작업반장들은 분발하였다. 종업원들을 발동하여 성형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성해냈다. 파자작업반들을 일선시키기 위한 전투를 벌일 때였다. 일부 조급일군들이 높은 천정의 층마다 어쩔수 없다고, 공사만은 그만두고 할 때 조급당에서는 공장안팎을 다 알뜰하게 꾸미며 대하여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안을 내놓았다. 천정에 실리는 힘을 력학적으로 계산한 그의 착상은 사람들의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조급일군들은 다시한번 분발하였다. 단위의 종업원들을 발동하여 단 한주일동안에 600여m에 달하는 천정의 층마다 공사를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과정에 조급 일군들은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대중발동의 모토도 찾아내게 되었다. 하나같이 열이 백, 천의 심장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대중을 발동하여 공장면모를 일신시켜 이룩 조급당일군들의 사업에 의해 어버이수령님의 송고한 념원을 활짝 꽃피우고있다. 본사기자 전경서

강력한 《지원포사격》으로 련합기업소당위원회가 다음으로 중시한것은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이다. 후방사업이자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 당의 의도를 깊이 새기고 당위원회에서는 후방사업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종업원들의 투쟁을 적극 추동하였다. 한마디로 후방사업으로 강력한 《지원포사격》을 한셈이다. 당위원회 비서 허철 호동무가 현장을 나갔을 때였다. 설비파장 정영준동무를 만나 이야기 나누던 일군은 그의 동복에 눈길을 뚫어주었다. 작업복이 적지 않게 닳았었다.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경험은 옳은 방법론을 찾아 활용하는것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의 진격로 열어세끼가 위한 중요한 담보라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을 철저히 관철...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며 《전당일군중속에 들어가자!》는 당의 구호를 계속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리당위원회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대중령도의 송고한 귀감을 교과서로 삼고 일하면서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키고 있다. 올해 1월 논두둑짓는 련결농기계를 만들 때였다. 설비가 부족하여 일부 사람들은 자체의 기술력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하고있었다. 하지만 리당위원회일군들은 배심이 든

의하면 농장에는 땅속 10~15cm깊이에 굳은 층이 형성된 면적이 있었다. 그것때문에 벼뿌리가 깊이 뻗지 못하고 생육에 지장을 받아 정량당 알곡수확고를 더 높이지 못하고있었다. 리당위원회일군들은 기계화작업인 기술자들에게 들어가는 문제를 풀기 위한 방도를 찾아나갔다. 지난해 7월 기계화작업반 한성진동무가 깊은 층을 뒤집어 이를 하는 련결농기계를 5대나 만들어냈다. 그리하여 논벼의 생산조건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정량당 알곡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본사기자 손영희

사투리는 그리움으로 불리는 7월을 철도부문의 당조직들은 어떻게 맞이했는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철도동맹계의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분출시켜 대고조를 적극 추동하는것으로 맞이했다. 김중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기관차조립직장 조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기공은 그것을 말해주는 한 실례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후 어려운 시기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수호하는 구조를 웨치며 위대한 천리마시대를 열어나가도록 힘써야 한다.》

#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은 우리 인민의 송고한 도덕이리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의 정이 조국강산에 차넘치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경쟁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발표 20년을 맞이하고있다. 주체 83(1994)년 7월 6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부면 책임일군회의에서 하신 경계사건 결론은 혁명적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오로지 조국의 통일변혁을 위하여 커다란 심혈을 기울여오신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위인상을 가슴뜨겁게 새겨주는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보이며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불멸의 지침이다.

지극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송고한 혁명적기공을 심장으로 걸맞게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김일성동지의 후손으로서의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갈 줄라는 결의에 넘쳐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상이 우리 수령님처럼 혁명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모든 사업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집무실에서 순직한 위대한 혁명가는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은 한평생 혁명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을 지니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바쳐오신 체제의 애국자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장구한 날을 오직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셨다. 오늘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에는 팔손이 넘는 고령에도 태양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공장과 농촌을 찾아 애국헌신의 장정을 펼치며 이어가신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력력히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필로 지니신 백두의 기상과 담력은 우리 조국이 사회주의의 불후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시대의 패도를 따라 억세게 나아가는 자주의 생애, 영웅적으로 빛을 뿌리게 한 근본보람으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명령도가 있었기에 조국번영을 위한 귀중한 재부들이 수없이 마련되게 되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이 창조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사상리론적이지와 령도력에 있어서나 혁명적기공, 인간적품에 있어서나 누구도 견줄수 없는 위인중의 위인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드림이었고 혁명실천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우리식 사회주의와 인민의 운명을 책임졌다든 송고한 사명감을 가슴깊이 간직하시고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걸으셨다. 남들같으면 열백 번도 쓰러졌을 것처럼 어려웠던 시련의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치게 일어나가자는 천명사를 전체 인민들에게 보내시어 수령님의 유훈관철에로 찬탄하며 불려일으키신분은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시대정신, 혁명적군인정신이 창조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면서 반만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경이적인 사면들이 대개단으로 일어나게 된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삼고 수령님식대로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명령도가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강성국가건설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투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세로로 일대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명령도 따라 창조와 변혁의 대진군을 다그쳐오는 나날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님의 송고한 령도따라 나아가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대로 이 땅우에 반드시 주체의 강성국가를 일떠세울수 있다는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게 되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삼고 기대를 잊지 않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이악하게 투쟁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실증해주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나가기 위한 근본원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게 발휘해나갈데 대한 사상을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오늘날 자력갱생은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온 세계에 앞서나가는 민족자존의 정신이며 최첨단들과의 정신이다. 자력갱생하여 이 땅의 모든것을 다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재부만도 만들면 우리 조국은 더 부강해질수 있다. 우리는 맨손으로 트랙터와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낸 그 투지,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유를 풍부한 그 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해나가기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은 조국번영의 앞길을 활짝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이며 우리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실현을 위한 투쟁의 기치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을 이 땅우에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가기 하겠다. 고려서관 주체철학강좌 강좌장 박사 출영삼

높이 들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데서 언제나 선봉적역할을 다해나가기 한다. 오늘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담하게 작전하고 실천해나가는 곳에서는 우리 당의 의도하고 바라는대로 모든 일이 잘되어가고있다. 현실은 모든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령으로 대제위권 당의 믿음과 기대를 잊지 않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이악하게 투쟁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실증해주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나가기 위한 근본원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게 발휘해나갈데 대한 사상을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오늘날 자력갱생은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온 세계에 앞서나가는 민족자존의 정신이며 최첨단들과의 정신이다. 자력갱생하여 이 땅의 모든것을 다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재부만도 만들면 우리 조국은 더 부강해질수 있다. 우리는 맨손으로 트랙터와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낸 그 투지,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유를 풍부한 그 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해나가기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은 조국번영의 앞길을 활짝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이며 우리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실현을 위한 투쟁의 기치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을 이 땅우에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가기 하겠다. 고려서관 주체철학강좌 강좌장 박사 출영삼

높이 들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데서 언제나 선봉적역할을 다해나가기 한다. 오늘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담하게 작전하고 실천해나가는 곳에서는 우리 당의 의도하고 바라는대로 모든 일이 잘되어가고있다. 현실은 모든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령으로 대제위권 당의 믿음과 기대를 잊지 않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이악하게 투쟁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실증해주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나가기 위한 근본원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게 발휘해나갈데 대한 사상을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오늘날 자력갱생은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온 세계에 앞서나가는 민족자존의 정신이며 최첨단들과의 정신이다. 자력갱생하여 이 땅의 모든것을 다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재부만도 만들면 우리 조국은 더 부강해질수 있다. 우리는 맨손으로 트랙터와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낸 그 투지,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유를 풍부한 그 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해나가기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은 조국번영의 앞길을 활짝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이며 우리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실현을 위한 투쟁의 기치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을 이 땅우에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가기 하겠다. 고려서관 주체철학강좌 강좌장 박사 출영삼

높이 들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데서 언제나 선봉적역할을 다해나가기 한다. 오늘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담하게 작전하고 실천해나가는 곳에서는 우리 당의 의도하고 바라는대로 모든 일이 잘되어가고있다. 현실은 모든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령으로 대제위권 당의 믿음과 기대를 잊지 않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이악하게 투쟁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실증해주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나가기 위한 근본원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게 발휘해나갈데 대한 사상을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오늘날 자력갱생은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온 세계에 앞서나가는 민족자존의 정신이며 최첨단들과의 정신이다. 자력갱생하여 이 땅의 모든것을 다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재부만도 만들면 우리 조국은 더 부강해질수 있다. 우리는 맨손으로 트랙터와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낸 그 투지,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유를 풍부한 그 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해나가기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은 조국번영의 앞길을 활짝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이며 우리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실현을 위한 투쟁의 기치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을 이 땅우에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가기 하겠다. 고려서관 주체철학강좌 강좌장 박사 출영삼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의 정이 조국강산에 차넘치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경쟁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발표 20년을 맞이하고있다. 주체 83(1994)년 7월 6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부면 책임일군회의에서 하신 경계사건 결론은 혁명적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오로지 조국의 통일변혁을 위하여 커다란 심혈을 기울여오신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위인상을 가슴뜨겁게 새겨주는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보이며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불멸의 지침이다.

지극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송고한 혁명적기공을 심장으로 걸맞게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김일성동지의 후손으로서의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갈 줄라는 결의에 넘쳐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상이 우리 수령님처럼 혁명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모든 사업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집무실에서 순직한 위대한 혁명가는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은 한평생 혁명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을 지니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바쳐오신 체제의 애국자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장구한 날을 오직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셨다. 오늘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에는 팔손이 넘는 고령에도 태양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공장과 농촌을 찾아 애국헌신의 장정을 펼치며 이어가신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력력히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필로 지니신 백두의 기상과 담력은 우리 조국이 사회주의의 불후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시대의 패도를 따라 억세게 나아가는 자주의 생애, 영웅적으로 빛을 뿌리게 한 근본보람으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명령도가 있었기에 조국번영을 위한 귀중한 재부들이 수없이 마련되게 되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이 창조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사상리론적이지와 령도력에 있어서나 혁명적기공, 인간적품에 있어서나 누구도 견줄수 없는 위인중의 위인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드림이었고 혁명실천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우리식 사회주의와 인민의 운명을 책임졌다든 송고한 사명감을 가슴깊이 간직하시고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걸으셨다. 남들같으면 열백 번도 쓰러졌을 것처럼 어려웠던 시련의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치게 일어나가자는 천명사를 전체 인민들에게 보내시어 수령님의 유훈관철에로 찬탄하며 불려일으키신분은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시대정신, 혁명적군인정신이 창조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면서 반만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경이적인 사면들이 대개단으로 일어나게 된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삼고 수령님식대로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명령도가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강성국가건설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투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세로로 일대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명령도 따라 창조와 변혁의 대진군을 다그쳐오는 나날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님의 송고한 령도따라 나아가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대로 이 땅우에 반드시 주체의 강성국가를 일떠세울수 있다는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게 되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삼고 기대를 잊지 않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이악하게 투쟁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실증해주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나가기 위한 근본원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게 발휘해나갈데 대한 사상을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오늘날 자력갱생은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온 세계에 앞서나가는 민족자존의 정신이며 최첨단들과의 정신이다. 자력갱생하여 이 땅의 모든것을 다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재부만도 만들면 우리 조국은 더 부강해질수 있다. 우리는 맨손으로 트랙터와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낸 그 투지,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유를 풍부한 그 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해나가기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은 조국번영의 앞길을 활짝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이며 우리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실현을 위한 투쟁의 기치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을 이 땅우에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가기 하겠다. 고려서관 주체철학강좌 강좌장 박사 출영삼

높이 들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데서 언제나 선봉적역할을 다해나가기 한다. 오늘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담하게 작전하고 실천해나가는 곳에서는 우리 당의 의도하고 바라는대로 모든 일이 잘되어가고있다. 현실은 모든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령으로 대제위권 당의 믿음과 기대를 잊지 않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이악하게 투쟁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실증해주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나가기 위한 근본원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게 발휘해나갈데 대한 사상을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오늘날 자력갱생은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온 세계에 앞서나가는 민족자존의 정신이며 최첨단들과의 정신이다. 자력갱생하여 이 땅의 모든것을 다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재부만도 만들면 우리 조국은 더 부강해질수 있다. 우리는 맨손으로 트랙터와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낸 그 투지,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유를 풍부한 그 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해나가기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은 조국번영의 앞길을 활짝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이며 우리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실현을 위한 투쟁의 기치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을 이 땅우에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가기 하겠다. 고려서관 주체철학강좌 강좌장 박사 출영삼

높이 들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데서 언제나 선봉적역할을 다해나가기 한다. 오늘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담하게 작전하고 실천해나가는 곳에서는 우리 당의 의도하고 바라는대로 모든 일이 잘되어가고있다. 현실은 모든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령으로 대제위권 당의 믿음과 기대를 잊지 않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이악하게 투쟁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실증해주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나가기 위한 근본원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게 발휘해나갈데 대한 사상을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오늘날 자력갱생은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온 세계에 앞서나가는 민족자존의 정신이며 최첨단들과의 정신이다. 자력갱생하여 이 땅의 모든것을 다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재부만도 만들면 우리 조국은 더 부강해질수 있다. 우리는 맨손으로 트랙터와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낸 그 투지,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유를 풍부한 그 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해나가기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은 조국번영의 앞길을 활짝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이며 우리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실현을 위한 투쟁의 기치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

#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한 고귀한 지침 다시금 새겨안게 하는 7월 6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를 지도해주신 20돐을 맞으며

## 자력갱생의 궤도따라 달려온 승리의 20년

7월 6일이다. 우리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마련하신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가 있는 때로부터 어느덧 20년이 흘렀다. 그날의 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에서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던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은 20년이 흐른 오늘날도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어제런듯 생생히 간직되어있다. 경제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일성동지께서 불려주시는 최대의 애국유산인 우리 식 사회주의는 세계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만면기틀이다.》

력사의 그날 미제와 온갖 원수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책에도 끄떡없이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칠수 있는 지름길을 명시 해주신 아버지수령님, 전력, 금속공업부문을 앞세우며 화학비료와 세멘트생산을 높이는 문제, 철도운수와 대외무역발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밝혀주시며 우리 수령님께서신신과 열정을 넘쳐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제제를 받는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제를 받으며 살아왔지 제제를 받지 않은적이 한번도 없다. 지금까지 제제를 받으면서도 우리

가 별일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제제를 더 받는다고 하여 못살아가겠는가. ... 마디마디에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내 나라, 내 조국땅에 일떠세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에 대한 확신과 자립의 우리 경제체제에 대한 철석의 믿음이 넘치시던 우리 수령님의 그날의 유훈이었다.

대를 이어 우리는 수령복속에 흘러온 지난 20년은 력사의 그날 우리 수령님께서 천명하신대로 오직 자력갱생만이 강성국가건설의 진로라는것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고 살로 다시금 새겨준 공적은 나라를 조국정상에 आरो세 올려놓았다.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기어이 꽃피울 철의 신념을 안고서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신 위대한 장군님, 고난의 행군시기 그 누가 내 마을 몰라죽도 몰라죽도 회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라라는 노래구절을 마음속으로 외우시며 자강도에 대한 현저지도의 길에 오르신 우리 장군님께서 열마 안되던 나라의 귀중한 자금을 기계공업의 CNC화에 통째로 투자하시었다.

그때는 우리 미처 다 알지 못했다. 또 알지도 없었다. 우리 장군님의 그날의 대응만이 나라의 자립적경제체제의 강화발전에 열마나 큰 사면적의의를 안아오게 될것인지였다.

한해 또 한해... 끊임없는 현지지도강행군길에서 아버지수령님께서 찾고찾으시는 자강도와 평안북도의 중요기계공장들에서 CNC라는 말이 점차 높이 울리기 시작하였다. 세 세

기에 들어와 그 말은 점차 각지의 기계공장들로, 아니 온 나라의 공장, 기업소 지어는 자그마한 지방산업공장까지 현대화라는 말의 동의어로, 새로운 시대로 퍼져 일군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의 사고관점에서의 근본적인 혁신으로 이어졌다.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전진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대담한 용단과 실천적모범으로 우리 모두에게 깨우쳐주시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불려주시는 최대의 유산중의 하나인 자립적기계공업체제는 우리 장군님의 애국헌신이 낳은 우리 식 CNC화가 실현된 본보기공장, 표본공장들과 더불어 중공업의 핵심으로 백방으로 강화되었다. 기술혁명의 기초인 기계공업이 현대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비약함으로써 우리의 자립적경제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되고 그것은 나라의 국력강화에 필요한 모든것을 다 만들어 내는 기적들을 낳았다.

인공지위성제작 및 발사국, 자위적 핵모유국, 주체비날론, 주체비료, 주체철, 마그네사카르바이드공업의 주체화, 최첨단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수력발전소들의 완공...

우리의 전진을 달가워하지 않는 미제와 온갖 원수들의 전대미문의 고집업살책동을 짓부셔 이룩된 이 하나하나의 기적들은 20년전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아버지수령님께서 강조하신 자력갱생의 궤도에서 달성된 빛나는 승리였다. 그것은 우리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신 위대한 장군님의 초강대국현저지도가 안아온

선군조선의 자랑찬 승전고였다. 오늘 우리의 천만군민은 또 한분의 백두산천출명장이신 경제에 하는 원수님을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그어주시는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더욱 보무당당히 돌진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한치의 드림도 없이! 천만군민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관철투쟁으로 불러일으킨 경제에 하는 원수님, 지난해에는 몸소 한자한자 쓰신 력사적인 호소문으로 온 나라에 《마식령속도》창조열풍을 안아오신 우리 원수님께서 오늘날도 조국번영의 새 력사를 수놓아가고계신다.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할 철석의 맹세를 더해주는 7월의 하루하루가 흐르고있다. 그날날에 우리 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를 마련하신 20돐이 되는 력사의 날을 맞은 온 나라 천만군민은 지금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우리 조국의 모든것을 세계에 없는 사회주의체제로 만드실 경제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포부를 심장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안고있다.

경제에 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명도를 높이 받들고 강성국가건설의 진로인 자력갱생의 궤도따라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전투쟁마다에서 세상을 들끓이시는 선군조선의 새로운 속개, 조선속개를 창조할 애국충정의 맹세를 온 나라 강산에 차넣고있다.

본사기자 리병춘

## 결사관철의 정신 전투투쟁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열린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아버지수령님께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에서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던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은 20년이 흐른 오늘날도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어제런듯 생생히 간직되어있다. 경제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부분, 자기 단위에 주신 아버지수령님의 유훈과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그것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주제 69(1980)년 9월 어느날 한강 건설중에 있는 공장을 찾았을 때 실재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건설을 다그쳐 끝낼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던 아버지수령님, 공장건설과 관련하여 주신 강령적인 교시만 하여도 100여차례 달한다니 실로 얼마나 크나큰 심혈과 로고속에 일떠선 공장인가.

공장도형사관을 유심히 보아도 그렇고 전방대에 올라 드넓은 공장구내를 굽어보아도 참으로 광활한 명당자리를 함

영 남 배수리공장을 찾아서

우리를 마음먹은대로 할수 있는 힘있는 공장으로 전변시켜주시던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명도의 자욱자욱을 심장에 새기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조국의 먼 앞날까지 내다보시며 수산운수발전에 이바지할 강력한 배수리기지를 건설할것을 구상하시고 몸소 이 공장의 터전을 잡아주시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부분, 자기 단위에 주신 아버지수령님의 유훈과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그것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주제 69(1980)년 9월 어느날 한강 건설중에 있는 공장을 찾았을 때 실재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건설을 다그쳐 끝낼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던 아버지수령님, 공장건설과 관련하여 주신 강령적인 교시만 하여도 100여차례 달한다니 실로 얼마나 크나큰 심혈과 로고속에 일떠선 공장인가.

공장도형사관을 유심히 보아도 그렇고 전방대에 올라 드넓은 공장구내를 굽어보아도 참으로 광활한 명당자리를 함

본사기자 주창선

## 고결한 충정, 헌신적인 투쟁기풍

한없는 그리움속에 7월의 날과 날이 흐를수록 전국각지의 발전소건설자들은 전력공업의 자랑찬 발전력과 더불어 빛나는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더욱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경제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갖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자를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별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이 땅의 천만군민은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신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전기화상을 경제건설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고있어 새겨안고 그날의 간곡한 유훈을 반드시 지향한 현실로 꽃피울 일념에 전 투쟁마다에서 세기를 추뽐잡으며 헌신적인 투쟁을 벌리었다.

당의 요구라면 산악도 뚫을수고 바다도 메우는 우리의 미더운 군인건설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시련과 난관을 혁명적군인 정신으로 뚫고나갔으며 역수로 쏟아지는 석수와 봉락도 육탄이

되어 밀어제끼면서 물길과 물안개 공사를 완성하고 마침내 안변청년발전소를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영광의 날에나 시련의 날에나 자기 수령, 자기 명도자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수령결사옹위의 투사들인 자강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 따라 모진 고난속에서도 강계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힘과 기술로 도처에 중소형발전소들을 수없이 건설함으로써 전기화실현에서 선군의 앞장에 섰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명도의 손길에 군대와 인민이 힘을 합쳐 불굴의 정신력과 자력갱생, 건고분투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아버지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독창적인 우리 식 수력자원개발방식으로 대규모의 태천발전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였으며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속에서 모도 비상한 작오와 투지를 안고 도다시 떨쳐일어나 금야강군민발전소를 보란듯이 일떠세우는 자랑찬 위훈을 세웠다.

민원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인 천만군민들도 아버지수령님께서 몸소 밝히시고 터진까지 잡아주시는 발전소를 기어이 완공하여

수령님의 명도업적을 만대고 빛내일 고결한 충정을 지니고 20여년간 인적없는 산중에 땀을 흘리며 결사전을 벌려 수령님의 유훈을 끝끝내 관철하였다.

하여 우리의 천만군민은 불변의 신념과 의지로 아버지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열린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몸소 이룩시켜주시는 수력발전소들의 건설을 모두 성과적으로 끝냄으로써 위대한 김일성신숙의 아들딸들이 자기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어떻게 변함없이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가를 온 세상에 독특히 보여주었다.

어제 이뿐이라, 아버지수령님의 태양의 력사가 이 땅에 줄기차게 흐르게 할 전체 인민의 고결한 충정과 헌신적인 투쟁에 떠받들려 삼수발전소와 메성강발전소, 원산청년발전소를 비롯한 한 대규모수력발전소들과 중소형발전소들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 소리지며 일떠섰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과 경제에 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서 거창하게 일떠선 최원발전소가 바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

들이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100돐에 드리는 고귀한 로력적선물이였다.

그리움의 대화가 끝없이 흐르는 7월의 이 시작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원산군민발전소,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소를 비롯한 대고조전투쟁마다에서 전체 발전소건설자들은 주체적인 동력기지를 수놓아 일떠세우시어 부강번영의 만민트대를 튼튼히 다져 주신 백두산결사옹위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더욱 가슴뜨겁게 떨쳐보며 눈시울을 적시고있다.

수십년전 몸소 비날론공장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건설전반을 전두에서 지휘해주시었고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는 친히 준공식에 참가하시어 테이프를 끊어주시며 인민들의 입은 문제를 해결하셔서 큰 문제가 풀린것이 못내 기쁘시어 해빛같은 미소로 지으신 아버지수령님의 태양의 모습을 천년이 간들, 만년이 간들 여저 잊을수 있오라.

지금으로부터 20년전인 주제 83(1994)년 7월 6일 아버지수령님께서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를 여시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중요한 결론을 하시었다.

본사기자 정순성

## 《주체비날론이 쏟아 집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으며 2.8 비날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생애의 마지막날까지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대중속에 깊이 인식시키면서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접히 결합시켜 비날론을 비롯한 화학제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으로

일군들과 대중을 힘있게 불려일으키고있다.

련합기업소의 당, 행정일군들은 우리의 원로, 연료와 최신회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을 추켜세우고 정상화하기 위하여 대담한 작전, 능숙한 지휘,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진격로를 앞장에서 열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탄광과 광산, 발전소, 철도운수부문과 긴밀한 면제를 가지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혁명적으로 풀어나가고있다.

탄광과 발전소, 철도운수부문 등 현지에 찾아가 그곳에서 걸린 문제들을 자기 입처럼 풀이 주고 기관차승무원들과 함께 원료와 연료를 실어나르는 일군들의 모습은 편만단위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감동시키고있다.

들끓는 현장들에 깊이 들어가 실정을 깊이 료해하고 공간관계를 긴밀히 해주면서 교차생산조직과 로력조직, 설비관리와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생산조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행하고있는 기지장 한동삼, 부기사장 리문철동무를 비롯한 함모부일군들의 일본세도 역시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맨 앞에서 내달리는 인민군대 지휘관들 그대로이다.

인민경제전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화학제품을 원만히 생산보장할데 대한 경제에 하는 원수님의 신념의 구별구별을 자자구구 되새겨보며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신들의 어깨 위에 지어진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고 질 좋은 비날론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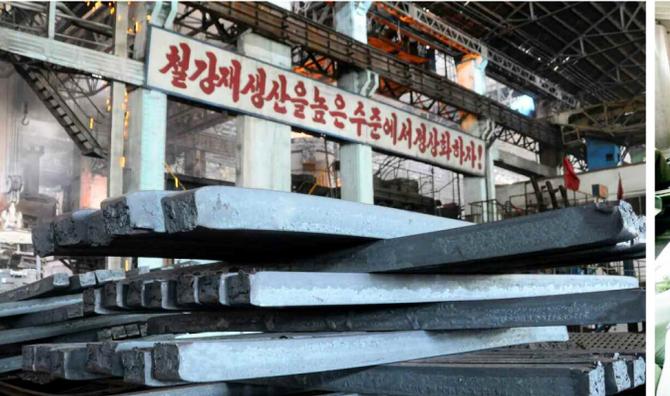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기업소에 갖든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깊이 빛내이며 경제에 하는 원수님의 명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불라는 결의를 다지면서 7월의 하루하루를 위훈과 혁신으로 수놓아가고있다.

본사기자 박동석

## \* 경제강국건설의 선구들에 세차게 타번지는 유훈관철의 불길 \*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완공의 날을 앞당겨간다. -어랑천발전소건설장에서-



더 많은 철강재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전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천리마계 강련합기업소에서-



주체비료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농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굴지의 세멘트생산기지에 증산의 동음 드높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대고조전투쟁을 향하여 전속으로! -서평양기관차에서-



선박수리와 배무이를 마음먹은대로 -령남배수리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